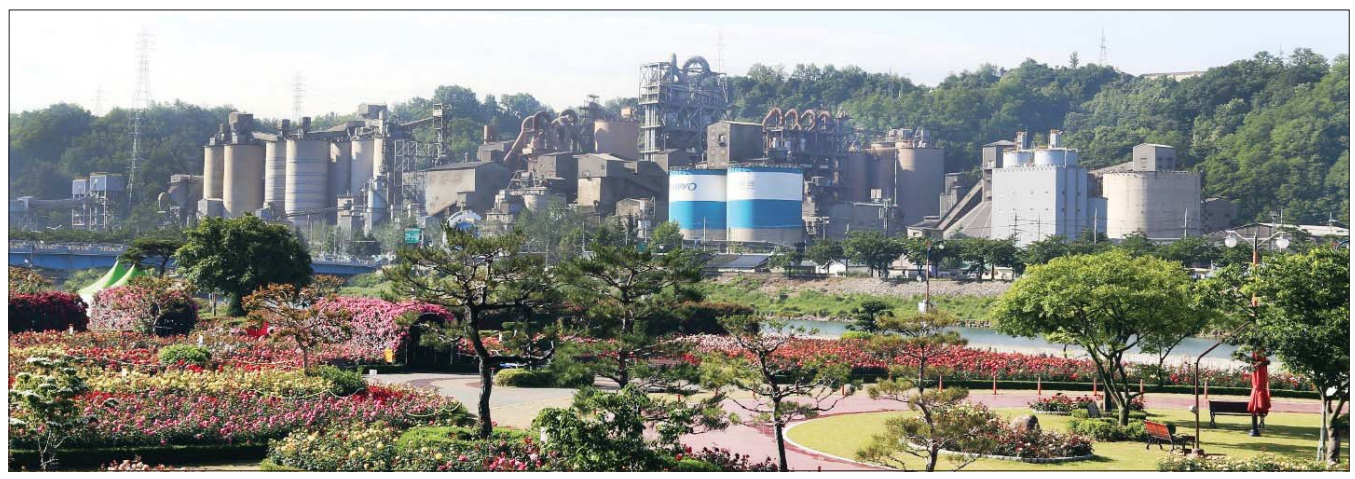
“한국전쟁 이후 기반시설 복구 거점… 안전·친환경에 올인”

르포 | 강원도 삼척 ‘삼표시멘트’ 공장 가보니

“이곳 삼척공장은 남한 최초의 시멘트공장이자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점이다. 삼표시멘트는 ‘안전·환경·사회적책임’을 중심으로 업계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강원도 삼척에 있는 삼표시멘트 본사에서 배동환 대표가 한국시멘트협회 출입기자들을 맞이하면서 전한 인사말이다.


강원도 삼척에 있는 삼표시멘트 공장 전경. /삼표시멘트

2015년 9월 삼표그룹으로 편입, 삼표시멘트로 간판을 바꿔단 이곳은 실제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 곳곳을 한창 복구하던 1957년 당시 동양시멘트란 이름으로 탄생, 남한에서 처음으로 시멘트를 만들던 곳이다.

이에 앞서선 일제시대인 1937년에 일본기업이 시멘트공장을 건설, 1942년 7월에 완공하고 그해 시멘트 8만5850톤(t)을 최초로 생산한 곳도 바로 삼척이다.

95년에 시멘트 누적생산량 1억t을 달성한 삼표시멘트는 현재 삼척공장에서만 연간 포트랜드 시멘트 958만t, 클링커(시멘트 반제품) 780만t을 생산하고 있다.

삼표시멘트가 산업안전·친환경을 위해 ‘올인’하고 있다.

삼표시멘트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맡고 있는 심연석 상무는 “‘모두가 함께 하는 안전’을 방침으로 삼고 있는 회사는 2020년과 2021년을 집중 안전개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와 안전투자 비용으로 2년간 150억원을 투자했다”면서 “이후에도 매년 40억~50억원 가량을 ‘안전’에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표시멘트는 일하기 좋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 안전체험 교육장인 ‘Safety Training Center’를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600평 규모로 들어선 안전 교육 센터는 가상현실(VR)을 활용해 다양한 산업재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제조 및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 및 끼임(협착) 등 예기지 못한 사고에 대비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심연석 상무는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를 동시에 크게 늘리면서 ‘아차사고’ 등 잠재적 위험요인까지 개선,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기위해 잠재된 위험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면서 “지난해 1106건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643건의 감소 대책을 수립했고, 이 가운데 544건을 개선한 바 있다. 또 고위험 작업군의 위험성을 개선하기위해 작업위험성평가(JSA)도 실시해 신규 작업 발굴까지 총 1106건의 위험성 평가도 진행했다”고 전했다.

‘아차사고’란 사고가 일어날뻔 했지만 실제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삼표시멘트는 지난 9월엔 고용노동부 태백지청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 경영에도 집중하고 있다.

1957년 국내 첫 시멘트공장 열어
포트랜드 연간 생산량 958만톤

2년간 안전위해 150억 투자하고
매년 약 40억~50억 더 투입키로

1700억 규모 친환경 설비 짓고
제주항에 업계 첫 시멘트전용선

주원료인 석회석을 비롯해 점토, 규석, 철광석 등을 원료로하는 시멘트는 반제품인 클링커를 만들기위해 1450℃의 고열로 가열하는 소성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가열할 때 주요 원료로는 유연탄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적인 원료로 바꾸거나 유연탄을 순환자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조 과정에서 폐열을 재활용하고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최소화는 것도 과제다.

배동환 대표는 “삼표시멘트는 환경중심의 경영으로 전환하기위해 약 1700억원 규모의 친환경 투자 설비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 NOx(질소산화물) 예열기 개조 ▲설비 효율화를 위한 저 NOx 연소기 교체 ▲여과 집진기 교체 ▲저감시설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또 업계 최초로 60억원을 들여 제주항에 시멘트 전용선을 투입하기도 했다. 전용선에는 시멘트 분진날림 방지를 위한 밀폐형 하역 설비가 장착돼 있다. 동해바다와 인접해 있는 삼표시멘트는 삼척공장에서 생산한 시멘트 전량을 배로 삼척항에서 부산, 목포 등 거점 지역으로 운반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7000t~1만t급 시멘트 전용선 13척을 보유하고 있다.

삼표시멘트는 2021년에 26%이던 순환자원(연료) 대체비율이 2023년엔 34%까지 늘었다. 유연탄 대신 합성수지, 타이어칩과 같은 대체연료를 51만 9000t 사용하면서다. 또 석회석 대신 석탄재, 오니류, 폐주물사, 슬래그 등 대체원료 사용 비율도 2023년 현재 9.7% 수준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건식 석탄재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생산 공정에도 적용하고 있다. 석탄재를 부원료로 사용하면 탄소 배출이 많은 클링커 생산을 낮출 뿐만 아니라 국내 연안에 매립해야하는 석탄재를 연간 20만t까지 줄여 해양환경 오염도 막을 수 있다.

삼표시멘트는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 중 하나인 ‘소성로에서 사용하는 유연탄 연료를 합성수지로 대체’ 연구과제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편 삼표시멘트는 2022년엔 시멘트 업계 최초로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신설, ESG경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엔 한국ESG기준원의 ESG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삼척(강원)=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화관법 적용社 절반 “기술인력 확보 어려워”

〈화학물질관리법〉

중기중앙회, 502개사 실태조사
화관서 작성 평균비용 696만원
작성시 어려움 58% ‘복잡한 서류’

중소기업들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지키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기술인력 확보’를 꼽았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관서) 작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업당 평균 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구비서류는 여전히 걸림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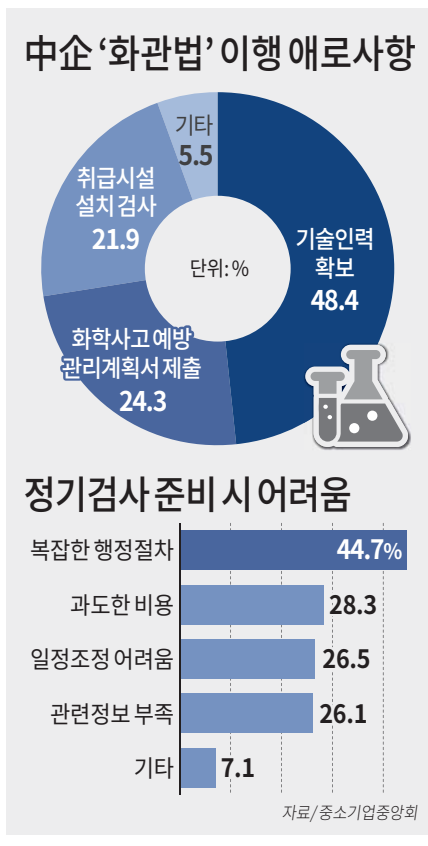
중소기업중앙회는 뿌리업종 등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화관법상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술인력 확보’(37.7%)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종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화관법상 인력 고용기준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48.4%는 여전히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화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평균비용은 ‘695만8000원’으로 파악됐다. 소요기간은 평균 10.3주였다.

화관서 작성 시 어려움(복수응답)으론 ‘복잡한 구비서류’(58.1%)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 ‘긴 소요기간’(38.7%), ‘담당 인력 부족’(38.7%)이 뒤를 이었다.



새롭게 도입하는 개념인 ‘최하위규정수량(LLT)’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65.5%가 최하위규정수량을 ‘하위규정수량(LT)의 5% 이상으로 지정해야한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기업들이 주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주조(100%), 용접(92.3%), 폐기물처리(89.8%) 등 업종에서는 최하위규정수량 기준을 높게 지정해야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사 응답 기업 중 80.7%가 화관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규정수량이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상당수 기업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관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는 우수기업에게 필요한 인센티브 제도로는 현재 정기검사 우수업체에 검토되고 있는 ‘정기검사 1년 연장’ 이외에 ▲정기검사 연장 주기 차등화(1~4년) ▲세금 감면 혜택 ▲법 위반 시 처벌 감경 및 유예 ▲시설자금 및 기술인력 지원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어려움이 줄었을 것이라 예상했던 기술인력 확보 과정에서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면서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와 더불어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수렴하는 등 규제당국의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소상공인 규제·경영애로 발굴 적극 개혁

중기옴부즈만-소공연, 업무협약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선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8일 오전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개선과 상호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규제 및 경영 애로 발굴과 개선,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규제개선 활동 홍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협약 자리에서 소공연은 그동안 고질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어렵게 했던 업종별 규제개선 과제 56건을 옴부즈만에 설명하고 전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8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 ▲외국인 고용허가제 취업 허용업종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김승호 기자

홈앤쇼핑, 중기중앙회와 中企 방송 지원

홈쇼핑 활용 판매·홍보 도와

홈앤쇼핑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우수상품 추천위원회’ TV홈쇼핑 방송입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8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발굴해 TV홈쇼핑을 활용한 판매 및 홍보 등 판매망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기업은 홈앤쇼핑 1회(50분) 생방송 판매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전국의 소비자에게 제품을 홍보·판매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1월11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 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